

전주도시정책 및 공간구조를 재정립

도시기본 계획정비 용역, 저탄소 자원형 도시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

전주시가 도시정책 방향과 도시공간 구조의 틀을 재정립해 천년전주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속가능한 미래 전주의 새로운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전주도시기본계획 정비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한 것으로,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정책방향과 도시공간구조의 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2035년 전주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실천전략을 제시, 도시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지표 및 개발전략에 따른 도시기본 골격구상, 저탄소 자원형 도시를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수

립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 틀을 정립하게 되며, 오는 2018년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 및 전북도의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팽창쪽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전주 북부권, 서남부권 등 동시다발적인 택지개발사업은 구도심 슬럼화를 가속화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고, 자동차 위주의 도로계획은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획일화된 아파트 건립사업은 도심 열섬화현상을 야기 등 도시계획 운영상 문제점도 다수 도출된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여러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적 여건, 무엇보다 '지속가능 도시'이라

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도록 이번 도시기본계획 정비에 기존보다 훨씬 더 삼할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정 계획 재검토를 통한 기존 도시발전방향의 한계 및 성장가능성 도출 등 전주민의 전략적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의 외형적 확장이 아닌 도시의 성장패턴, 도시형태 등 도시유형 진단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미래상 및 추진전략 발굴을 위한 시민계획단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으로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전주도시계획은 과거 1938. 5. 9. 일 도심을 중심으로 계획면적 19.7km², 인

구 10만을 계획으로 처음 수립되었으며, 이후 9차례에 걸친 재정비 절차를 통해 현재 206.11km² 도시계획구역이 설정 되었으며, 현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12년 당시 목표연도 2025년, 인구 78만을 계획으로 개발용지 22.4%, 보전용지 77.6%로 수립되었고, 이는 다시 2015. 8. 28일 최종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바 있다.

시에서는 지난 24일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낙찰자 선정이 완료되어, 이번 주 계약절차를 마치는 데로 이르면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정비 용역은 2018년 12월 완료되며,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2019년부터는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주도시관리계획변경(재정비)을 추진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글로벌 전주 홍보대사 위촉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와 바른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글로벌 전주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서 교수가 글로벌 전주 홍보대사로 활동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해외에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한국 해외 홍보 전문기관 서 교수에게 전주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서 교수는 전주시가 앞으로 추진하는 각종 글로벌 사업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또, 전주시 홍보동영상 제작 및 해외홍보 추진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해부터 서 교수와의 수차례 면담을 갖고 전주가 글로벌 도시

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세계적인 여행잡지인 론리플래닛이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도시' 중 3위로 선정하고, 전주한옥마을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광객을 넘어서는 등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인정받으면서 해외연론 매체 등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일상적인 국제교류를 넘어 해외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영문 페이스북(www.facebook.com/globaljeonju)을 개설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주알리기에 나설 글로벌 전주 서포터즈도 위촉했다.

/김민근 기자

익산 AI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전주시법 제2형부는 28일 전주 익산시 망성면의 한 동물복지농장 주인 우씨(50.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은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

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씨의 농장에는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일 불과 2.1km 떨어진

진 옥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AI 확산 농장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16개 농장의 닭 85만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우씨 가족은 "확실적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농장을 고소했다. 우씨 측은 자신의 농장은 일반 농장과 달리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는 특수성 등을 강조했다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근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31일 밤 11시부터 전면 통제

전주시설공단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이용을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전면 통제(출차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통제는 다음달 2일 전북 현대모터스축구단의 K리그 홈 경기 개최에 따라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경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주차장 내 매표소 및 이동식 화장실(10통)을 설치하고, 관람객 이동 통로 및 선수단 등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을 통제하기로 했다.

경기 당일 종합경기장 주차는 선수단 및 관계자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일반 관람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북대학교 교내주차장(시중권 및 당일티켓 소지자)을 이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K리그 홈경기 개막전에는 2만935명의 관람객이 종합경기장을 찾았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도민 한미당 축제의 장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의 K리그 홈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영산강-섬진강 자전거길 벤치마킹 실시

전주시는 최근 자전거 도로 개설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자전거길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영산강 하구둑에서 담양댐까지 133km, 섬진강 자전거길은 섬진강생태체육공원에서 배알도수변공원까지 149km로 총 거리가 282km이며, 이들 동안 전주시 자전거 정책과 직원들은 기 조성된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직접 체험해 전주시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는 역량을 키웠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다양한 노면을 직접 타 보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시멘트 및 우레탄으로 설치돼 자전거 주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간도 있고, 아스콘 포장된 자전거 길은 자전거 타기 적합한 노면으로 주행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 자전거 도로 노면의 중요성에 대해 체험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위한 밑거름이 됐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한옥 우수 건축자산 실태조사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되는 구도심 내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는 한옥 등 지역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전주시내 건축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건축자산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옥 등 고유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먼저, 시는 올해 미래유산 프로젝트 선도사업 지역인 노송동 문화촌과 서학동 예술촌을 건축자산 실태조사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건축자산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과 공간 환경, 기반시설 등 단계별로 건축자산을 구분하고, 건축자산의 보존 활용방안을 제시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사단법인 도시연구소 한울(대표 서종주)과 인터아키텍처사무소(대표 정성일)를 공동으로 용역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용역에 본격 착수, 오는 8월에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올 연말까지는 시범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건축자산으로 선정된 한옥 등 건물 소유주는 전라북도 등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개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과 견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법령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